



「범접할 수 없는 완강 신화」 국어 모의고사 및 해설(7)

| 박혜선 교수 | 박문각남부고시학원

14. 다음 글의 중심 화제로 옳은 것은?

경제학자에게 화폐란 부(富)의 한 형태로, 결제에 즉시 사용할 수 있는 자산을 의미한다. 우리가 사용하는 화폐는 유통되지 않는다면 그저 유명인의 초상화가 그려진 종이에 불과하다. 이처럼 그 자체만으로는 아무 가치가 없는 화폐를 법정 불환 지폐라고 한다. 이것은 법률에 따라 화폐로 확정되었기 때문에 통용될 수 있는 것이다. 과거에는 대부분의 사회에서 자체적으로 가치를 내재하고 있는 상품을 화폐로 사용하였다. 이를 상품 화폐라고 하는데, 금은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서 대표적인 상품 화폐로 통용되었다.

- ① 법정 불환 지폐의 조건
- ② 현대 사회에서 화폐의 중요성
- ③ 화폐의 두 가지 유형
- ④ 화폐 체제의 변천 과정

정답 : ③ 비문학/ 독해 난이도 : 중

【해설】

이 글은 화폐의 개념을 정의하며 우리가 쓰는 화폐인 '법정 불환 지폐'와 과거에 사용했던 금과 같은 '상품 화폐'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이 글의 중심 화제는 '화폐의 두 가지 유형'이다.

<오답해설>

- ① '법정 불환 지폐'는 법률에 따라 화폐로 확정되었기 때문에 통용될 수 있다고 하며 그 조건을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글의 일부 내용이므로 중심 화제가 될 수 없다.
- ② '현대 사회에서 화폐의 중요성'은 이 글과 관계가 없는 내용이므로 중심 화제로 적절하지 않다.
- ④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화폐와 과거에 사용했던 '상품 화폐'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화폐 체제가 변화해 온 과정을 다루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중심 화제로 적절하지 않다.

15. 다음 글의 서술상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예술 작품의 의미와 가치에 대한 해석과 판단은 비평의 목적과 태도에 따라 달라진다. 주요 방법으로는 맥락주의, 형식주의, 인상주의 비평이 있다. 맥락주의는 창작 당시 환경, 정치·경제·문화적 상황, 작품이 사회에 미치는 효과 등을 비평의 근거로 삼는다. 예술 작품이 그 시대의 문화를 구체화하며, 예술가가 속한 사회의 특성을 반영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또한 시대적 배경 외에 작가의 심리, 이념 등 가급적 많은 자료로 작품을 분석한다. 그러나 객관적 자료를 중심으로 작품을 비평하려는 맥락주의는 작품의 외적 요소에 치중해 본질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이런 맥락주의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형식주의와 인상주의의 비평이 있다. 전자는 예술 작품의 형식적 요소와 요소들 간 구조적 유기성의 분석을 중요시한다. 한편, 후자는 모든 분석적 비평을 회의적으로 보며 예술을 객관적 자료로 판단할 수 없다고 본다. "훌륭한 비평가는 대작들과 자기 자신의 영혼의 모험들을 관련시킨다."라는 비평가 프랑스의 말처럼, 이들은 외적 요인들을 배제한 채 비평자의 자유 의지로 작품을 해석하고 판단한다.

- ① 화제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열거하고 있다.
- ②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한 말을 직접 인용한다.
- ③ 다양한 이론들을 평가하여 종합적인 결론을 도출한다.
- ④ 특정 관점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대안적 관점을 소개한다.

정답 : ③ 비문학/ 독해 난이도 : 중

【해설】

예술 작품의 비평에 대한 다양한 관점들이 제시되고 있다. 각 관점에서 중시하는 요소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고 있지만 이를 평가하여 종합적인 결론을 도출하지는 않았다.

<오답해설>

- ① 첫째 문장에서 예술 작품에 대한 비평에는 '맥락주의, 형식주의, 인상주의의 비평'이 있다고 열거하면서 글을 시작하고 있다.
- ② 둘째 문단에서 인상주의의 비평에 대해 설명하면서 "훌륭한 비평가는 대작들과 자기 자신의 영혼의 모험들을 관련시킨다."라는 비평가가 '프랑스'가 한 말을 직접 인용하고 있다.
- ④ '맥락주의'가 '작품의 외적 요소에 치중해 작품 본질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문제점을 제시하면서 대안적 관점으로 형식주의 비평과 인상주의 비평을 소개하고 있다.

16. 다음 작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금은 남의 땅 —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나는 온몸에 햇살을 받고,
푸른 히늘 푸른 들이 맞붙은 곳으로,
가르마 같은 논길을 따라 꿈 속을 가듯 걸어만 간다.
입술을 다문 하늘아, 들아,
내 맘에는 나 혼자 온 것 같지를 않구나!
네가 끌었느냐, 누가 부르더니. 답답워라. 말을 해 다오.
(중략)
강가에 나온 아이와 같이,
짬도 모르고 끝도 없이 담는 내 혼아,
무엇을 찾느냐, 어디로 가느냐, 웃어웁다, 답을 하려무나.
나는 온몸에 뜻내를 띠고,
푸른 웃음, 푸른 설움이 어우러진 사이로,
다리를 절며 하루를 걷는다. 아마도 봄 신령이 지폈나 보다.
그러나 지금은 — 들을 빼앗겨 봄조차 빼앗기겠네.
—이상화,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 ① 시각을 청각화하는 감각의 전이가 일어나고 있다.
- ② 자연물을 의인화하고 말을 건네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 ③ 격정적인 호흡과 영탄적인 어조를 사용하고 있다.
- ④ 질문-대답의 변형된 수미상관의 구조를 이루고 있다.

정답 : ① 현대문학 난이도 : 중

【해설】

'푸른 웃음'은 청각적 심상인 '웃음'을 시각적 심상인 '푸른'으로 수식하여 청각의 시각화라는 감각의 전이가 일어나고 있으므로 잘못된 설명이다.

<오답해설>

- ② 3연에서 '입술을 다문 하늘아, 들아,'라고 자연물을 의인화하면서 '답답워라. 말을 해 다오.'라고 말을 건네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 ③ '~않구나! / 네가 끌었느냐, 누가 부르더니. 답답워라. 말을 해 다오.'와 '무엇을 찾느냐, 어디로 가느냐, 웃어웁다, 답을 하려무나.' 등에서 격정적인 호흡과 영탄적 어조를 사용하고 있다.
- ④ 1연은 의문형 어미를 사용해 질문을 하고, 마지막 연은 이에 대한 답변을 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또한 작품의 처음과 끝이 유사한 시구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변형된 수미상관의 구조에 해당함으로 적절한 설명이다.

[작품 정리]

- * 이상화,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 * 해제: '봄'은 사계절의 처음이다. 따뜻한 별이 눈을 녹이고 새로운

생명이 짹트는 계절이 봄이다. 화자에게 생명력 넘치는 계절인 봄은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사회적 분위기, 그것이 가능한 민족의 현실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이다. 화자가 들을 빼앗겨 봄조차 빼앗기겠다고 답답해하는 것은 화자에게 '봄'이 계절적 의미를 넘어, 당시 민족의 현실과 관련된 상징적 의미로 이해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자연의 섭리에 따라 봄은 왔으나 '봄'과 같이 민족이 삶다운 삶을 누릴 수 없었던 현실에 화자는 답답함을 느끼고 있는 것이다.

- 주제: 국토를 빼앗긴 민족의 비통한 현실 / 국권 상실의 아픔과 국권 회복에의 염원과 의구심
- 구성

1연-국권 회복의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

2연-조국의 아름다운 봄 경치

3연-봄을 느끼며 깨닫는 답답한 마음

4~8연-봄을 맞은 국토의 아름다움, 애정

9~10연-국권을 빼앗긴 조국의 현실에 대한 깨달음

11연-절망적인 현실 속에서의 새로운 인식(봄을 빼앗길 수 없다는 애정과 의지의 역설)

- 표현상의 특징
 - 향토적 소재와 시어를 구사함.
 - 격정적인 호흡과 영탄적 어조를 사용함.
 - 시상의 흐름이 전후 관계에 따른 대칭 구조를 보임.
 - 시각적 심상, 직유법, 의인법
 - 형태상의 균형미, 수미상관의 구성(질문과 대답의 형식)

17. 다음 작품과 관련이 없는 한자성어는?

두터비 파리를 물고 두험 우희 치다라 안자
것너산(山) 바라보니 백송골(白松骨)이 떠 있거날 가슴이 금
즉하여 풀덕 뛰여 내닷다가 두험 아래 잣바지거고.
모쳐라 날낸 낼식망정 에힐질 번하괘라.

- ① 苦肉之策 ② 勘斂誅求
- ③ 啓然失色 ④ 厚顏無恥

정답 : ① 고전문학 난이도 : 중

【해설】

'苦肉之策(고육지책)'은 적을 속이기 위하여 자신의 괴로움을 무릅쓰고 꾸미는 계책이라는 의미이다. '두터비'는 '백송골'을 속이기 위해 '두험' 아래로 넘어진 것이 아니므로 이 작품과는 관련이 없는 한자성어이다.

苦 쓸 고/땅 이름 호, 肉 고기 육, 之 갈지, 策 괴 책/채찍 책

<오답해설>

- ② '勘斂誅求(가렴주구)'는 가혹하게 세금을 거두거나 백성의 재물을 억지로 빼앗는다는 의미이다. '두터비'는 부패한 양반이나 관리, '파리'는 힘없는 백성, '두험'은 부정 축재를 상징하므로 이 작품은 탐관오리들의 부패상을 풍자한 것이다. 따라서 '勘斂誅求'는 이 작품과 관련이 있는 한자성어이다.

苛 가혹할 가, 斂 거둘 렘(염), 誅 벌 주, 求 구할 구

- ③ '啓然失色(아연실색)'은 뜻밖의 일에 얼굴빛이 변할 정도로 놀라는 의미이다. '두터비'는 '백송골'을 보고 '가슴이 금즉하여 뛰어내린 모습과 관련이 있는 한자성어이다.

啞 병어리 아, 然 그럴 연, 失 입을 실, 色 빛 색

- ④ '厚顏無恥(후안무치)'는 뻔뻔스러워 부끄러움이 없다는 의미이다. 종장의 '모쳐라 날낸 낼식망정 에힐질 번하괘라.' 라며 수치스러운 상황임에도 자신이 날쌔기 때문에 피멍이 들지 않았다는 두꺼비의 모습과 관련이 있는 한자성어이다.

厚 두터울 후, 颜 낮 안, 無 없을 무, 恥 부끄러울 치

• 현대어 풀이

두꺼비가 파리를 입에 물고 두엄 위에 치달아 앉아 건너편 산을 바라보니 하얀 송골매가 떠 있거늘, 가슴이 섬뜩하여 풀썩 뛰어서 내달리다가 두엄 아래에 넘어져 나뒹굴었구나. 딱행히도 날쌘 나이기에 망정이지 멍이 들 뻔하였구나!